

I. 서론

한국 성경 역사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천주교의 신부나 개신교의 선교사가 성경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성경을 외국에서 입수하여 들여와 읽었다는 사실이다. 천주교의 경우 신부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1779년에 이미 신자가 되어 있었고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¹⁾ 또한 개신교의 경우 선교사가 1885년 제물포항(인천)에 입국하기 전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한국에 들어와 읽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성경이 선교사나 외국인에 의해 전파되었다거나 전래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성경을 수용하였다는 표현이 적절하여 연구주제에 ‘수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²⁾

성경이 한국 땅에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해석되었는가라는 주제는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19세기 말엽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들은 이미 성경을 읽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는 특별한 열정이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한국 기독교를 가리켜서 ‘성경 기독교(Bible Christianity)’라고 불렀을 정도였기 때문이다.³⁾

성경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열정의 뿌리와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가? 한국 성경이라면 일반적으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리키며 한국 성경의 효시로는 1882년부터 존 로스(John Ross)와 이수정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짧은 개신교 성경 번역의 역사로 성경이 이처럼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개신교 이전에 천주교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허균(許筠, 1569-1618)에 의해서 들여온 『七克』(1614)에는 성경 구절이 143회나 번역되어 있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성경직히』는 1790년대에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4복음서의 30.68%가 번역되어 있었다.⁴⁾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 때에는 한글로 쓰인 서학 관련 책들이 83종 128책에 이르렀다.⁵⁾ 따라서 한국 성경의 역사를 적어도 300년 정도 앞당겨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에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신부들은 조선에 들어오기가 힘들었고, 들어와서 활동했어도 많은 제약 속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고 신자들이 더 증가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일이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원동력을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을 읽고 필사하며 외우며 기도생활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감시의 눈을 피해 필사된 성경과 교리서들을 보물처럼 간직했으며, 개인적으로 혹은 몇 명이 모이는 교회모임을 통해 읽혀졌고 해석되었으며

1) 윤민구,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국학자료원, 2002), 95-338: 1779년 천진암에서 이벽을 비롯한 선비들이 기도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천주공경가와 십계명가를 지어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이 때 읽은 성경은 발췌성경과 교리서에 포함된 부분적인 성경으로 짐작된다.

2) 이만열, “한국의 기독교 수용과 그 특징,” 『亞細亞研究』 44호(2001), 3-22.

3) “Matters of Moment,” *Bible in the World*, Mar. 1907, 70.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성경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3 (1993. 3), 3에서 재인용.

4) 조화선, “‘성경직히’의 연구,” 최석우신부회갑기념 『한국교회사논총 3집』(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256-261.

5) 최재건, 『조선 후기 서학의 수용과 발전』(한울출판사, 2005), 107-120.

암기되었다. 신부나 선교사가 없어도 신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성경 덕분이었던 것이다. 참으로 “성경은 신앙을 지켜주는 방패였고, 냉담을 풀어주는 근원이었으며, 신앙의 보화가 담긴 창고였던 것이다”⁶⁾

문제는 17-19세기 성경 수용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신약분야에 국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⁷⁾ 그것도 『성경직히』를 중심으로 연구된 편향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도 분명히 수용되었으며 도처에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장례식 때 드리는 기도인 연도기도문에는 시편이 8편이나 번역되어 있는데 연도기도문이 포함된 『턴주성교례규(天主聖教禮規)』는 1865년에 상·하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⁸⁾ 이 외에도 미사를 위한 기구문 가운데는 시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연도기도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연도(煉禱)는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러한 연도와 연옥에 관한 교리는 외경 마카베오서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마카베오하 12:38-45). 연옥에 관한 교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때는 1274년 제2차 리용 공의회였으며 이로서 이 교리는 널리 전파되었고 신자들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되었다.⁹⁾ 그러나 개신교는 외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옥에 관한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비록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연도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8편의 시편은 한국 시편 번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 한국 개신교 초기 시편 번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1898년 유대인 개종자 알렉산더 피터스(A. A. Peters)가 한글로 시편 62편을 번역하여 『시편촬요』를 출판한 사건이다.¹⁰⁾ 그리고 그 이전에 개신교에서 부분적으로 시편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1890년 시편 39편과 90편이 번역된 『미이미교회강례』,¹¹⁾ 그리고 1893년 시편 몇 구절이 번역한(시편 19:4; 49:8-9; 51:5; 70:14; 92:2-3; 145:17; 89:14) 『의경문답(義經問答)』, 1895년 시편 95편 1-3절과 98편 4-6절이 번역된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教人規條)』 등이 있다.¹²⁾ 또한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는 1897년 5월 19일자에 시편 32장 1-11절이 게재되어 있고, 1897년 12월 22일자에는 시편 122장 1-9절이 게재되어 있다.¹³⁾

그런데 연도기도문에 포함된 시편은 이러한 시편 번역보다 적어도 1세기 앞서서 한글로 번역되었고 장례식 때 반복해서 기도로서 들려졌다. 연도기도문에 포함된 8편의 시편은 130,

6) 조한건, “『성경직해광익』 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85.

7) 李鎔結, “한국 천주교회의 성서 운동.”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논총 제2집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373-416; 조한건, op. cit.; 조화선, op. cit.; 최석우, “성경 한글번역에 있어 한국 천주교회의 선구적 역할.” 『가톨릭청년』 15권 5호 (1961), 62-70; 하성래, “한국 천주교회의 한글 번역 활동.”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논총 제2집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469-530.

8) 하성래, op. cit., 525.

9) 강영애, 『한국 천주교 상장례노래 煉禱』 (민속원, 2007), 57-58.

10)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신학사상』 22집 (1978), 24-66; 김중은, “최초의 구약국역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A. A. Peters, 彼得).” 『교회와신학』 13 (1981), 29-42.

11) Henry G. Apenzeller, 『미이미교회강례』 (삼문출판사, 1890). 21-22.

12) Samuel Austin Moffet,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教人規條)』 (1895), 30-31. 윤춘병, “초기 한국 기독교 문헌에 기록된 한글판 구약.” 『기독교사상』 통권 340호 (1987, 4), 132.

13) 민영진, 엮음, 117; 한국 감리교사학회 편, 『조선 크리스도인의 회보 (영인본)』 (한국교회사 문헌 연구원, 1990).

51, 113, 119, 24, 148, 149, 150편 등이 번역되어 있다. 다만 119편의 경우에는 1-16절 부분만 번역되어 있다. 시편 130편과 51편의 경우, 1801년 신유박해 이전부터 한글로 번역되어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⁴⁾ 8편의 연도기도문에 대해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1865년에 상·하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된 『턴주성교례규(天主聖教禮規)』다.¹⁵⁾

연도기도문으로 활용된 8편의 시편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자가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라는 논문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¹⁶⁾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8편의 시편에 대한 정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도기도문으로 활용된 8편의 시편들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고, 8편의 시편들을 『시편찰요』와 1906년 번역된 『시편』과 비교하여 혹시 8편의 시편이 개신교 시편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II. 『턴주성교례규』의 시편과 『시편찰요』와 『시편』(1906)의 비교

8편의 연도기도문 시편이 포함된 『턴주성교례규』는 천주교 장례에 관한 예식서로서 조선에서 21년간 선교한 다블뤼(M. N. A. Dableuy, 安敦伊) 주교가 라틴어본인 『로마예식서(Rituale Romanum)』를 토대로, 한문본인 『聖教禮規(성교예규)』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그런데 다블뤼 주교는 『聖教禮規(성교예규)』 전체 5권 가운데 3권만 선택하여 번역하였는데 1-3권만 번역하고 4-5권의 혼인예식 부분은 번역하지 않았다.¹⁸⁾ 이 책은 1865년에 상·하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제2권에 8편의 시편이 번역되어 있다.¹⁹⁾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목판본은 1887년에 간행된 것이다.²⁰⁾

그리고 비교할 『시편찰요』는 장로회신학도서관 소장본으로서 [찰요]로 표시하고, 『구역』으로는 1906년 요코하마에서 인쇄된 번역된 『시편』 단권 번역본인데 출판연도를 따라 [06]으로 표기하였다.²¹⁾ 그리고 [개정]은 1998년 개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개역개정』판을 가리킨다. 또한 히브리어 성경은 [히]로 표기하고, 라틴어 불가타역은 Clementine Vulgate(1598)인데 [VUC]로 표기하였다.²²⁾ 그리고 연도기도문 8편 가운데 24, 51편만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연도기도문 시편 번역문의 경우 원래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작은 글씨로 해설을 붙인 부분이 있는데 쉽게 구분하기 위해 괄호 안에 넣었다.

24:1

[연도] 대디와 원만하게 실닌 만물이며 온 텃하와 거긔 거ㅎ는 모든쟈 | 다 쥬꺃 속ㅎ엿도다
[찰요] — 와 헤 득 것과 세샹과 세샹에 사 이가 여호와 속 엿도다

14) 정중호,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56집 (2015), 74.

15) 하성래, op. cit., 525.

16) 정중호, op. cit., 75-82.

17) 간행자 미상, 『聖教禮規』, 한국교회사연구소 고문서 소장.

18) 강영애, 『한국 천주교 상장례노래 煉禱』 (민속원, 2007), 71.

19) 하성래, op. cit., 525.

20) 민아오스딩 감준, 『턴주성교례규』 (京城, 1887).

21) A. A. Peters, 『시편찰요』 (장로회신학도서관 소장본, 1898);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ed. 『시편』, (『韓國聖經大全集』 15,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2002] 영인본)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LTD, 1906 대한 광무 십 년 병오).

22) 『시편』(1906)의 저본이 될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긴스버그 구약』(1894)이라 볼 수 있다.

[06] — 와 그 풍성 거시 여호와와 거시오 세상과 및 그 가온 거하 자가 그러
도다

24편 뿐 만 아니라 모든 [연도]는 표제를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편을 연도 기도문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엔 시편의 성격이나 역사적 배경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연도]는 순수 한글로 번역하였지만 대지(大地), 만물(萬物), 천하(天下) 등 한자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또한 [연도]는 하나님을 ‘주’라고 번역했으나 [찰요]와 [06]은 ‘여호와’로 번역하였다. [연도]와 [06]의 유사한 점이 있는데, [찰요]에서는 ‘사 이’로 한글을 사용하는데 비해 [연도]와 [06]은 ‘거하는 모든자’와 ‘거하 자’로 한자어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모두 [히]에 충실한 번역이지만 [히]의 시적인 표현과 어순을 따른 것은 [06]의 번역이 가장 가깝다.

24:2

[연도] 주 | 창히 우희 세우신 거시오 모든 강하 우희 비명하신 거시로다
[찰요] 二 대개 여호와가 터 바다들 우헤 닥그시고 강들 우헤 흘 세우셨도다
[06] 二 대개 바다 우에 터를 잡으시고 큰 물 우에 세우셨도다

[연도]는 창히(蒼海), 강하(江河), 비명(比定) 등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히]에는 대명사로 하나님을 가리켰는데 [06]은 대명사조차 사용하지 않았고, [연도]와 [찰요]와 [개정]은 대명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1절에 나타나는 ‘주’ 혹은 ‘여호와’를 사용하였다. [히]의 ‘참으로’에 해당하는 ‘키’라는 단어를 [찰요]와 [06]은 ‘대개’로 번역했으나 [연도]와 [개정]은 번역하지 않았다.

24:3

[연도] 주의 산으로 뉘 능히 오르며 그 거룩하신 처소에 뉘 능히 류련홀고
[찰요] 三 누가 여호와와 산에 올라 가며 누가 그 거룩 곳에 서리오
[06] 三 여호와와 산에 올라갈자가 누구며 그 거룩 곳에 설자가 뉘리오

[연도]는 능(能), 처소(處所), 류련(流連) 등의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도]는 ‘뉘 능히’라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히]의 시적인 감각을 잘 살려 번역하였다. 연도를 할 때는 장절의 구분이 없이 통절 형식으로 하며, 두 팀으로 나누어 계와 응으로 주고받는다. 이 때 계는 한 사람이 할 때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환창 방식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³⁾ 사제나 독창자가 주관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관람자의 위치에 있지만, 기도를 공동이 주관할 때는 참여하는 신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 특히 상을 당한 집주인과 같은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도 형태로서 그 자발성이라는 동력이 있었기에 한국에 180여 년간 이어올 수 있게 되었다.

24:4

[연도] 행실이 무죄하고 모습이 정결하야 제 심명을 헛되이 밝지 아니하며 늙을 피하야 허세를 내지 아닌자 | 로다

23) 강영애, op. cit., 95-96.

[촬요] 四 손이 긋 며 이 청결 며 령혼을 허탄 에 맞기지아니 고 속여 세 지아
니 이로다

[06] 四 손이 긋 고 이 정결 며 허탄 에 을 붓치지아니 고 거스 세를 지
아니 자로다

[연도]는 행실(行實), 무죄(無罪), 생명(生命), 허셔(虛恕) 등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히]의 ‘네페쉬’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연도]는 ‘생명’이라 번역하였고 [촬요]는 ‘령혼’이라 번역하였으며 [06]과 [개정]은 ‘뜻’이라 번역하여 [연도]의 번역이 가장 ‘네페쉬’에 가까운 번역을 하였다. [히]의 ‘라샤웨’는 ‘헛된 것에’라는 뜻인데 [연도]는 ‘헛되이’라고 한글 고 번역한 반면 [촬요], [06], [개정]은 ‘허탄’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24:5

[연도] 이런이가 쥬끼 강복함을 받을거시오 저를 구하시느 텃쥬끼 긍련히 녀이심을 납으리로
다

[촬요] 五 이 사 이 여호와 복을 받고 저 구원 시 하 님 올흠을 받으리로다

[06] 五 이 사 은 여호와 복을 엇고 저를 구원 시 하 님이 의롭다 시리로다

[연도]는 [VUC]의 ‘그’라는 대명사를 ‘이런이’로 번역했는데 [촬요]와 [06] 모두 이러한 번역을 따라 ‘이 사 ’이라 번역하였다. [연도]와 [촬요]와 [06]은 [히]도 따르지 않고 영어번역도 따르지 않는 독특한 번역으로 [촬요]와 [06]이 [연도]의 번역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도]는 ‘야웨’를 언제나 ‘쥬’로 번역하고 ‘하나님’을 ‘텃쥬’로 번역하였다.

24:6

[연도] 이런 사롬은 쥬를 성실이 ㅅ는류 | 오 야곱의 텃쥬의 성용을 곤절이 ㅅ는류 | 로다

(이러므로 오쥬와 هنگ지로 능히 텃당쥬의 산으로 영화로이 오르리라)

[촬요] 六 여호와 고 야곱의 하 님의 얼굴은 구 이의 가 이러 도다 (셀나)

[06] 六 이는 쥬를 차자 구 족속이며 야곱의 하 님의 낫출 구 자로소이다 (셀나)

[히]의 ‘야곱’은 호격으로 별도로 번역해야 하는 단어이며 KJV도 호격으로 번역하였는데, 모두 ‘야곱(의 하나님)’ 형태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연도]의 번역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후대 번역보다 [연도]의 번역이 [히]의 시적인 번역을 더 성실하게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함께 기도하는 연도기도의 특성상 시적이며 음악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연도]는 (이러므로 오쥬와 هنگ지로 능히 텃당쥬의 산으로 영화로이 오르리라) 라는 후렴구 형식을 작을 글씨로 첨가하여 기도이며 노래인 점을 해설하였다. 후렴구는 망자의 영혼이 ‘천당’으로 오르기를 바라는 [연도]의 목적을 강조한 해설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도기도를 위해 한 절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130편과 51편의 끝에 한 절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즉 “쥬여 망자의게 기리 평안함을 주쇼셔 영원헌 빛치 더의게 빛최여지이다”. 그리고 『천주성교공과』의 130편에는 “쥬여 망자들의게 기리 평안함을 주쇼셔 영원헌 빛치 더희게 빛최여지이다. 망자들이 평안 에 쉬여지이다. 아멘”이 첨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도]는 음악 부호로 짐작되는 ‘셀라’를 번역하지 않았다.

24:7

[연도] 슈문장들아 너희 문을 떠들며 영원한 문이여 열날지어다 영광의 님군이 들어가시리로다

[참조] 七 문들아 너희 머리 들며 영원 지계문들아 드리여라 영화로운 님금이 드러가시리로다

[06] 七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님군이 드러가시리로다

[연도]는 [VUC]를 따라 ‘principes’를 슈문장(守門將)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문’으로 번역된 처음의 단어 ‘샤아르’가 ‘성문’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페타흐’는 성안 건물의 입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페타흐’는 ‘입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참조]는 ‘지계문’으로 번역했다. 지계문은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으로 흔히 돌쩌귀를 달아 여닫는 문이다.

24:8

[연도] 이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 강용하시고 능하신 쥬 | 시오 전장에 능하신 쥬 | 시로다

[참조]八 영화로운 님금이 뉘시뇨 강 시며 용 신 여호와시오 싸흠에 용 신 여호와시로다

[06] 八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 건장 시고 용 계신 여호와시오 전장에 용 계신 여호와시로다

[참조]와는 다르게 [연도]와 [06]이 유사하다.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라는 구절이 정확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7-9절에 계속해서 4회나 반복된다. 만일 [06]이 [참조]를 참조했다면 ‘님금’이라는 당시의 현대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06]은 [연도]를 참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어(古語)인 ‘님군’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라 짐작된다. 크게 보면 임금은 님금>님군>님검>님금>임금의 순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단계는 명확하지 않고 님군과 님금이 함께 사용된 시기도 있었다.

또한 [참조]에서 ‘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06]은 [연도]의 구절을 참조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06]이 참고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쉐레셰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에는 ‘尊榮之王’으로 번역되어 있다.²⁴⁾ 그리고 ‘전장에’라는 용어도 [연도]와 [06]이 동일하지만 [참조]는 다르다.

24:9

[연도] 슈문장들아 너희 문을 떠들며 영원한 문이여 열날지어다 영광의 님군이 들어가시리로다

[참조]九 문들아 너희 머리 들며 영원 지계문들아 머리 드러라 영화로운 님금이 드러가시리로다

[06] 九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님군이 드러가시리로다

24) 『쉐레셰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은 김경수가 편찬한 바 있다. 김경수 편, 『1912년에 발간된 한문 성경』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2010), 599; 이환진은 구역 번역의 대본을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벳슨 역(1864)』과 RV(1881)로 추정했지만 『쉐레셰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에서도 빌려왔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 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욕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제27호 (2010.10), 51.

[히]는 두 번째 구절에 ‘스우’로서 ‘들어라’의 뜻이다. 7절에는 ‘히나스우’로서 그 뜻은 수동형(니팔형)인 ‘들릴지어다’의 뜻이기에 9절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연도]와 [개정]이 7절과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24:10

[연도] 이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 력능의 쥬 | (력능은 탄신품을 날 이라) 이 영광의 님군이시로다

[참요] + 영화로운 님금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 곳 영화로운 님금이시로다 (셀나)

[06] + 이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 만유의 여호와시니 이는 곳 영광의 님군이시로다 (셀나)

[참요]와는 다르게 [연도]와 [06]이 유사하다.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라는 구절과 ‘영광의 님군이시로다’라는 구절이 이 정확하게 동일하다. 그리고 [연도]는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며 어려운 한자일 경우 해설을 첨가하였다. [연도]는 ‘력능’이라 번역하면서 “력능은 탄신품을 날 이라”는 해설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연도]는 148편의 경우 ‘적슈 | (적슈는 싸힌물 이라 말)’이라는 형식으로 어려운 한자를 해설하기도 하였다.

51:1

[연도] 턴쥬여 네 즈비흐심을 크게 베프샤 나를 긍련이 녁이쇼셔 또 네 만코만흔 즈비흐심을 가져 내 죄악을 샅하야 업시흐쇼셔

[참요] — 하 님이어 쥬의 은혜를 조차 나 불상이 녁이시고 쥬의 비 심이 넓음을 조차 내 죄악을 지어 업게 쇼셔

[06] — 하 님이어 인 심을 좃치샤 나를 긍휼히 녁이시며 긍휼이 만흐심을 좃치샤 나의 모든 범죄 을 업시 여주옵쇼셔

[연도]는 [히]의 ‘헤세드’와 ‘라하밈’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자비’로 번역하였다. [히]의 ‘헤세드’를 [참요]는 ‘은혜’로, [06]과 [개정]은 ‘인자’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히]의 ‘라하밈’은 아기를 품고 있는 ‘자궁’을 가리키는 ‘레헴’에서 나온 단어로서 무조건적이며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06]과 [개정]에는 ‘긍휼’로 번역했는데 [연도]와 [참요]는 ‘자비’로 번역했다.

51:2

[연도] 내 죄악을 씻고 더 씻스시고 내 죄의 더러운 거슬 조출케하쇼셔

[참요] 二 내 허물에서 나 온전히 씨스시고 내 죄에서 나 정결케 쇼셔

[06] 二 나의 악 을 아케 씻기시며 나의 죄를 곳게 여주옵쇼셔

다른 번역본들은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했지만 [참요]는 ‘나 자신’을 씻어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연도]는 ‘말끔히 씻다’라는 구절을 ‘씻고 더 씻스시고’라고 번역하였다.

51:3

[연도] 나 | 임의 내 죄악을 아느니 내 죄흉상 나를 디흐야잇느이다

[촬요] 三 대개 내 죄악을 내가 알며 내 죄가 상 내 압헤 잇 이다

[06] 三 대개 내가 나의 범죄 을 아오니 내 죄가 상 내 압헤 잇 이다

[히] ‘네게드’라는 단어는 ‘...을 대하여’ 혹은 ‘앞에’라는 뜻인데 [연도]만 ‘대하여’라고 번역하고 다른 번역본들은 ‘앞에’라고 번역하였다. [연도]가 더 적합한 번역을 하였다.

51:4

[연도]나 | 흘노 네게 죄를 범하고 네 압히셔 악을 지엿느이다 네 말슴의 올흠이 나타날 거시오 또한 너와 맞셔는 무리의 항복흠을 받으시리로다

[촬요] 四 내가 죄 흘노 쥬 만 범 고 악으로 보시 거 엿스니 쥬 셔 말 실 에 공의로오시며 심판 실 에 청 셧 이다

[06] 四 오직 쥬 만 내가 범죄 엿고 쥬의 압헤셔 악 일을 엿스니 쥬 셔 말 실 에 의로오시다 고 국문 실 에 셧 시다 리이다

[연도]의 번역 ‘네 압히셔 악을 지엿느이다’라는 구절은 [06]과 비슷하나 [촬요]는 ‘악으로 보시 거 엿스니’라고 다르게 번역하였다. [연도]의 후반부 번역 “네 말슴의 올흠이 나타날 거시오 또한 너와 맞셔는 무리의 항복흠을 받으시리로다”는 불가타와도 다르게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 것이다. “Tibi soli peccavi, et malum coram te feci: ut justificeris in sermonibus tuis, et vincas cum judicaris.” [VUC]

51:5

[연도] 나는 죄악에서 삼기고 내 모친이 나를 죄중에 비엿느이다

[촬요] 五 불지어다 내가 허물 중에서 나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 슈 엿 이다

[06] 五 불지어다 내가 날 에 죄악이 잇고 내 어머니가 나를 잉 엿슬 에 내게 죄가 잇섯도다

[연도]만 한글로 ‘비엿느이다’라고 번역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를 사용하여 ‘수태’ 혹은 ‘잉태’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연도]만 ‘모친’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로 번역하였다. 또한 [06]의 경우만 태아에게 죄가 있다고 번역하였고 나머지는 누가 죄 가운데 있었는지 분명하게 번역하지 않았다.

51:6

[연도] 너는 진실흠을 사랑하시니 과연 네 지혜의 심오하고 은밀한 거술 내게 열어 주섯느이다

[촬요] 六 불지어다 쥬 셔 속에 진리 잇 거 깃버 시고 나의 숨기 속에 지혜 게 시겿 이다

[06] 六 쥬 셔 중심에 진실 을 원 시니 나로 여곰 나의 은밀 중심에 지혜를 알게 시 리이다

[연도]는 [VUC]를 따라 ‘알게 하십니다’라는 히브리어 구절을 ‘열어 주섯느이다’라고 번역하였다. “Ecce enim veritatem dilexisti: incerta et occulta sapientiae tuae manifestasti

mihi.[VUC]

51:7

[연도] 너 | 이소보로(이소보는 풀 일흠이니 고교 사죄흐는 레에 이소보로 희 의 피를 죄인의 게 뿌리느니라) 내게 뿌리쇼셔 나 | 곳쫓 조출흐리이다 나를 짓기쇼셔 나 | 곳 눈에서 더 희 리로소이다

[촬요] 七 우슬초로 나 죄에서 닥그 쇼셔 곳 내가 곳 거시오 나 씨셔주 쇼셔 곳 내가 눈 보다 더 희겟 이다

[06] 七 우슬초로 나를 곳게 쇼셔 곳 내가 정 거시오 나를 찢기쇼셔 곳 내가 눈 보다 더 희겟 이다

다른 번역본에 ‘우슬초’로 번역한 히브리어 ‘에조브’를 라틴어 성경(VUC)에 hyssopo로 음역했는데 [연도]는 ‘이소보’라 음역하고 이 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처럼 생소한 외래어를 [연도]는 해설하기도 하였다.

[연도] 너 | 내 귀에 깃븐 소리를 (사죄흐시는 허락) 들니시리니 곳스러졌던 내 히골이(통회함으로 육신이 다 느러졌다 말) 다시 니러나 용약흐이다

[촬요] 八 날노 여곰 깃븐과 즐거움을 들니우샤 쥬 셔 부지르신 깃버 게 쇼셔

[06] 八 나로 즐거움과 깃븐 소 를 듯게 샤 즈격그신 가 즐겁게 시웁쇼셔

[연도]는 ‘즐거워하다’를 ‘용약(踴躍)흐이다’로 한자어로 번역하였다.

51:9

[연도] 네 얼굴을 두루혀 내 죄를 보지 말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야 업시 흐쇼셔

[촬요] 九 주의 얼굴을 내 죄의게 리우시고 내 모든 허물을 지어 업게 쇼셔

[06] 九 낮출 리워 내 죄를 보지마르시며 내 모든 악을 업시 여주웁쇼셔

[연도]와 [06]이 거의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특히 첨가구절인 ‘보지 말으시고’로 번역한 부분이 일치하며 히브리어 성경보다 불가타 역에 가깝다. [연도]의 ‘두루혀’는 ‘돌려’라는 뜻이며 불가타역에 가깝다. Averte faciem tuam a peccatis meis, et omnes iniquitates meas dele. (VUC, 당신의 얼굴을 나의 죄에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51:10

[연도] 텃쥬여 조출흐 므음을 내게 새로 내시고 내심신을 바르고 새롭게 흐쇼셔

[촬요] 十 하 님이여 내게 정결 을 지으시고 내 속에 곳센 심령을 새롭게 쇼셔

[06] 十 하 님이여 나를 위 샤 정 을 지으시며 내 속에 정직 심령을 새롭게 시 쇼셔

[개정]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연도]는 ‘영’([히]의 ‘루아흐’)을 ‘심신’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창조하다’를 ‘새로 내시고’라

고 번역하였다.

51:11

[연도] 나를 네 압히셔 내치지 말으시고 또 네성신을 앗지 말으쇼셔

[참요] 十一 주 압헤셔 나 보내지 마 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셔 앗지 마 쇼셔

[06] 十一 나를 주 압헤셔 차 내지마옵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셔 거두어 가지 마시옵쇼셔

[연도]와 [06]이 동일하게 ‘성신’이라 번역하였는데 [참요]는 ‘성령’이라 번역하였다. [연도]는 ‘그리고’라는 연결사를 번역했고, ‘취하다’의 뜻으로 ‘앗지’라고 번역하여 가장 [히]를 잘 번역하였다.

51:12

[연도] 네 구하시는 락을 내게 도로 주시고 또 네성총으로써 나를 견고케 하쇼셔

[참요] 十二 주의 구원 심의 깃뵤를 내게 회복 시고 즐겁게 좃 심령을 주심으로 나 붓드쇼셔

[06] 十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주시며 나를 붓드샤 순종 심령을 주시옵쇼셔

[연도]는 락(樂), 성총(聖寵), 견고(堅固) 등 한자어를 사용했으나, 오히려 ‘회복’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도로 주시고’라고 번역함. 연결사 ‘또’를 번역하였다. 특히 ‘자원하는 영’을 [연도]는 하나님의 ‘성총’으로 번역했으나 다른 모든 번역은 사람의 ‘심령’이라 번역함. 참고로 KJV는 ‘thy free spirit’로 하나님의 영이라 번역했다.

51:13

[연도] 인하여 내가 너 | 뵤아 흥하시는 길흘 악한자를 거르치리니 악한 무리는 네게 회두하리이다

[참요] 十三 그 에 나 주의 도로 죄악짓 자들을 치고 죄인들은 주 로 도라가갓 이다

[06] 十三 그러 면 내가 범법 자의게 주의 길을 치리니 죄인이 주 로 도라가리이다

[연도]는 ‘회두(回頭)’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였는데 천주교 교리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 그리고 [연도]는 ‘길’이라는 단어를 ‘뵤아 흥하시는 길’이라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51:14

[연도] 텃쥬 나를 구하시는 텃쥬여 나를 혈죄에(살인헌 죄라) 구하쇼셔 곳 내 혀 | 네의 덕을 찬양하리이다

[참요] 十四 하 님이여 나 구원 시 하 님이여 피 흘니 죄에서 나 견지쇼셔 이에 내 혀가 주의 공의로오심을 노래 갓 이다

[06] 十四 하 님이여 나를 구원 시 하 님이여 피 흘닌 나를 죄에서 나 견지쇼셔 내 혀로 주의 공의를 높히 노래 리이다

[연도]는 ‘피흘림’을 ‘혈죄(血罪)’라고 번역하고 ‘살인헌 죄라’는 해설을 첨부하였다. 그리고

[연도]는 [히]의 ‘츄다카’를 ‘덕(德)’이라 번역하였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모두 ‘(공)의’라고 번역하였다.

51:15

[연도]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곳 내 입이 너를 찬양하리이다

[참조] 十五 주여 내 입설을 여려주소서 내 입이 곳 주 찬미 을 전 겿 이다

[06] 十五 주여 내 입설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 를 찬송 야 반포 겿 이다

[연도]와 [06]이 연결사를 ‘곳’과 ‘ ’으로 번역하였으나 다른 번역본들은 생략하였다.

51:16

[연도] 너 | 만일 제를 원하셨더면 나 | 드렸시릿마는 희싱은 네 즐기지 아니시리이다

[참조] 十六 대개 주 셔 제 깃버아니 심이어 만일 깃버 신즉 내가 드리겿 이다 주 셔 번제 도화아니 심이어

[06] 十六 대개 주는 제 를 절기지아니 시니 즐기셨스면 내가 드렸스리이다. 주는 번제를 깃버아니 시 이다

[연도]는 ‘화목제’를 ‘제(祭)’로 번제를 ‘희싱(犧牲)’으로 번역하였다. 다른 번역본은 모두 ‘제사’와 ‘번제’로 번역했다.

51:17

[연도] 튀주의 즐기시는 제는 크게 설워하는 마음이라 통회하고 겸손하는 마음은 주여 너 | 브리지 아니시리이다

[참조] 十七 하 님의 제 통 심령이 로쇼이다 하 님이어 통 고 상 을 주 셔 업슈이 녀이지아니 시겿 이다

[06] 十七 하 님의 제 상 심령이니 하 님이어 상 고 통회 을 경홀히 녀이지 아니 시겿 이다

[연도]와 [06]이 모두 ‘통회’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참조]는 ‘ 통’이라 번역하였다.

51:18

[연도] 주여 네 인조하신 마음으로 은혜를 시온의게 (시온은 예루사렘 성의 한 곳 일흠이라) 베프샤 예루사렘의 성을 짓고 견고케 하소서

[참조] 十八 주의 깃뵤으로 은혜 씨온에 베프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세우소서

[06] 十八 주의 처분을 라 시온에서 션을 시며 예루살렘의 성을 짜흐소서

[연도]는 ‘시온’에 대해 해설하였다. 그리고 [연도]와 [06]이 ‘시온’으로 음역하였는데 [참조]는 ‘씨온’으로 음역하였다.

51:19

[연도] 그때에 의로움의 제와 귀구하는 레물과 찬미하고 공경하는 제를 너 | 흠향하시리니 이

때에는 빅성들이 네 제디 우희 감사하논 희싱을 만히 두어 드리리이다

[찰요] 十九 그 에 쥬 셔 올흔 제 와 번제와 변희제 깃버 시겻슴이어 그 에 규의 제 단에 슈소 드리겻 이다

[06] 十九 이에 쥬 셔 의로운 제 곳 번제와 온전히 불살오 제 를 즐기시리니 그 에 사 이 슈소를 쥬의 단에 드리겻 이다

[연도]는 “의로움의 제와 그구하논 레물과 찬미하고 공경하논 제”로 번역하였다.

III. 결론

1. 『툰쥬성교례규』 시편의 특징

[연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혔지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연도]가 순수하게 한글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연도]가 노래인 점을 염두에 둔 시적인 번역이라는 점이다.

비록 [연도]가 한글로 번역했지만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 혹은 생소한 외래어일 경우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해설을 첨가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해설의 관습은 [찰요]에도 나타나는데 [찰요]의 말미에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설명하며 해설하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연도]는 때로 [찰요]나 [06]보다 더 순수한 한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시편을 노래 부를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4편 4절의 경우, [히]의 ‘라샤워’는 ‘헛된 것에’라는 뜻인데 [연도]는 ‘헛되이’라고 한글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찰요], [06], [개정]은 ‘허탄’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51편 5절의 경우, [연도]만 한글로 ‘비엿누이다’라고 번역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를 사용하여 ‘수태’ 혹은 ‘잉태’로 번역하였다. 또한 119편 1절의 경우, ‘행위가 온전하여’를 ‘세상길에 무들미 업시’로 의역을 하였는데 이해하기 쉬운 순수 한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49편 1절의 경우, ‘모임’을 당시에 ‘잔치 모임’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뭇거지’로 번역하여 성도들의 모임이 흥겨운 모임임을 표현하였다.

또한 [연도]는 기도이면서 함께 합송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음악적이며 시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연도]는 기도이면서 노래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을 선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한 부분도 있다. 또한 연도기도라는 형식과 목적을 위해 한 절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24편 6절의 경우, 후대 번역보다 [연도]의 번역이 [히]의 시적인 번역을 더 성실하게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함께 기도하는 연도기도의 특성상 시적이며 음악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연도]는 해설 형식으로 후렴구 형식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도기도를 위해 한 절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130편과 51편의 끝에 한 절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51편 4절의 경우, [연도]의 후반부 번역 “네 말씀의 올흠이 나타날 거시오 또한 너와 맞셔논 무리의 향복흠을 밧으시리로다”는 불가타와도 다르게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 것이다.

[연도]는 장례식 때 밤을 새우면서, 혹은 장례행렬 가운데서 한목소리로 기도를 드렸는데 한국의 전통 가락과 결합하여 찬송으로서 불려졌다.²⁵⁾ [연도]는 천주가사와 더불어 한국 찬송의

시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시편을 활용하여 시편 찬송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2. 『시편』(1906)이 『턴주성교례규』 시편의 번역을 참고했을 가능성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연도]와 [06]이 서로 유사하거나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이다. [찰요]가 [06]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주장이지만 [연도]가 [06]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다.²⁶⁾ 우선 24편 7-9절에서 [찰요]와는 다르게 [연도]와 [06]이 동일하다.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라는 구절이 정확하게 4회나 반복해서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51편 18절에서, [연도]와 [06]이 ‘시온’으로 음역하였는데 [찰요]는 ‘씨온’으로 음역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24편 5절에서 [연도]는 [VUC]와 [히]도 따르지 않고 ‘그’라는 대명사를 ‘이런이’로 번역했는데 [찰요]와 [06] 모두 이러한 번역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51편 9절의 경우 [연도]와 [06]이 [찰요]와는 다르게 한 구절을 첨가하였는데 동일하게 ‘보지 말으시고’로 번역하였다. 또한 24편 1절의 경우, [연도]는 ‘거하느 모든자’로 [06]에는 ‘거하 자’로 [찰요]와는 다르게 거의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그리고 130편 1절에서는, [연도]와 [06]은 단순히 ‘깊은데서’([찰요], [개정])가 아니라 ‘깊고 그윽한 곳에서’와 ‘깊은 웅덩이에서’로 비슷하게 의역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24편 6절과 51편 4, 11, 12, 15, 17절, 등에서 [찰요]와는 다르게 [연도]와 [06]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편 24편과 51편을 [연도], [찰요], [06] 등으로 비교해 볼 때 유독 [연도]와 [06]이 [찰요]와는 다르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번역을 하고 있는 12절을 위와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130편 1절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06]이 [연도]의 번역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25) 강영애, “가톨릭 상장례 노래인 연도(위령기도)의 변모양상,” 『우리신학』 6 (2008), 94; 주은경, “한국 천주교 장례예식서를 통해 본 장례문화와 연도(煉禱)의 노래문화,” 『한국음악사 학보』 제 40집 (2008), 598.

26)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찰요』 [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大本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제28호 (2011), 28.